



소설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한 '소리 없는 영상'의 장면.



〈포도나무 갤러리 제공〉

# 낭독과 영상으로 만나는 소설 '소년이 온다'

'소리 없는 영상' 전 2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5·18 역사와 성찰"

김홍빈·심혜정·정기현 작가, 오월어머니회·시민들 낭독 장면 담아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고 나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진다. 폭력의 가혹성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가녀린 생명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인지 깊게 숙고하게 된다. 아니 분노하게 된다.

소설은 80년 5월 18일부터 10일간 있었던 광주민중항쟁 당시 상황을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미해 역사의 기억과 상처에 주목한다.

소설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한 '소리 없는 영상'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2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1층 전시실.

김홍빈, 심혜정, 정기현 작가가 참여해 제작한 이번 영상전은 오월어머니회와 시민들이 소설 6장을 읽는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은 모두 40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작업은 5·18기념재단이 주최하고 오월어머니회와 갤러리포도나무 등이 협력해 진행됐다.

작품을 기획한 유재현 작가는 "관객과의 치유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목소리를 텍스트와 결합한 관객 참여형 작품으로 구성했다"며 "다양한 장면을 매개로 장소성과 5·18의 역사성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소설은 중학교 3학년인 동호가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다. 동호는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돕는다. 합

동분항소가 있는 상무관에서 주검들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초를 밝히던 동호는 문득 문득 친구 정대의 죽음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한다.

이번 설치를 담당했던 정기현 작가는 "영상마다 그것에 맞게 스크린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날씨나 외부적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했다.

원 텍스트인 '소년이 온다'가 서사적, 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인데다 오월어머니들의 개인사와 포개지면서 낭독은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특히 전시의 주제 '소리 없는 목소리'는 소설 속 6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손으로 묻은 오희엄마의 독백과 연계돼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한다.

사실 소설에 대한 상찬은 많은 독자들과 평론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형철 평론가는 "5월 광주에 대한 소설이라면 이미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느냐고, 또 이런 추천사란 거짓은 아닐지라도 대개 과장이 아니냐고 의심할 사람들에게,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둘 다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것이다. 이것은 한강을 뛰어넘은 한강의 소설이다"고 평한 바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모두 두 개의 섹션을 만나게 된다. 먼저 영상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접한다. 오월어머니들 모습, 2023년 광주의 모습을 이미지와 낭독, 텍스트 등 다양한 영상 설치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관람객들은 3개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먼



저 '꽃 핀 쪽으로'에서는 6명의 오월어머니와 현재를 살아가는 다중화자들이 6장을 낭독한다. 아이를 자기 손으로 묻은 동호 어머니의 독백을 따라 누군가의 목소리가 앞서 가거나 뒤따르기도 한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목소리가 하나로 겹쳐진다. 마지막

순간에 소년은 꽃이 핀 쪽으로 여러 목소리들을 안내한다.

이어 '어린 새, 소년 2023'과 '제1장 어린 새'는 짝을 이룬다. '어린 새, 소년 2023'은 2023년 현재로 소환된 동호의 시선을 따라가는 영상이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책의 1장을 낭독하고 녹음할 수 있다. 전시장에 마련된 녹음기를 이용해 소설을 읽으며 텍스트가 전하는 의미와 소설이 환기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전시장 입구에는 터키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10여 종의 '소년이 온다'가 비치돼 있다.

기획을 담당한 정현주 박사(포도나무갤러리 관장)는 "이번 영상 작품은 현재의 시점과 5·18이라는 두 개의 층위로 구성돼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전시의 방법적인 면에서 어머니의 관점에서 풀어보려 했다"며 "보다 젊은 관객들에게 5·18의 의미가 현재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역량있는 미술인 발굴 '무등미술대전'

(사)광주·전남발전협회 11월27일까지 접수...한국화·조각 등

12월1일 수상작 발표

제39회 무등미술대전(전국 공모)이 열린다.

(사)광주·전남발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무등미술대전'은 1985년 첫 대회 개최 이후 꾸준히 전국의 역량있는 미술인들을 발굴해온 전통의 대회다.

이번 작품 공모는 한국화, 문인화, 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금속·도자·목질·섬유 및 기타), 서예(한글·한문·현대서예·멋글씨(캘리그래피), 사진 등이며 접수 마감은 다음달 27일까지다.

분야별 대상 9명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상 23명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대상 작가 가운데 1명을 문화체육부장관상 수

상자로 선정한다.

미술대전에서 동일 분야 4회 이상 특선하거나 10회 이상 입선(1회 이상 특선)하면 초대작가로, 추천작가로서 5회 이상 미술대전에 출품한 자나 운영·심사위원을 3회 이상 역임한 자는 초대작가로 활동할 수 있다.

한편 심사는 오는 11월 30일 열릴 예정이며 입상작은 12월 1일 광주·전남발전협회의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시상식은 입상작 전시회가 열리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 30분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 전시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남발전협회 사무처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예술단원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제공〉

## '한중일 문화의 가교를 건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10주년 공연... 14일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지난 2012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세 나라가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를 한곳씩 선정하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동아시아 원년 문화도시로 한중일 세 도시가 각각 선정됐다. 광주시, 취안저우시, 요코하마 세 도시가 그곳.

올해로 동아시아 원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세 도시가 1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세 도시 예술단의 공연이 마련됐다.

오는 14일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한중일 문화의 가교를 건너다'라는 주제로 10주년 기념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공연에는 광주와 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시의 예술단이 참여해 음악과 무용을 선보인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도시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비전공 성악가들의 공연은 도시의 음악적 역량 가능 외에도 문화를 통한 가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운영진 사무국장은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매년 인적

·물적 교류를 매개로 상호 우호를 증진해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광주가 원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서 광주에서는 해금연주단 '이현'(二絃)이 선율을 선사한다. 지난 2019년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퇴직자들이 모여 만든 해금연주단으로 매년 정기공연과 무료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연주곡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등이다.

취안저우의 전통예술을 세계에 소개하는 중국 취안저우시 예술단(1956년 설립)은 '가룽빈가', '하늘과 바다 사이에 서서' '원푸 바다소리' 등을 선보인다.

일본 요코하마의 '가파른 언덕 그룹'은 무용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용가 아오키드름 중심인 안무가, 무용가, 사진가들로 결성된 예술단은 이전 작품들의 세계관과는 다른 새로운 작품세계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젤 하이라이트'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13일서빛마루문예회관

발레의 꽃이라 불리는 '아라베스크'는 한쪽 다리를 뒤로 곧추세우는 동작이다. '지젤(Giselle)'에 포함된 대표적인 기술로, 우아한 모습으로 인해 '지젤 라인'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광주시립발레단은 기획공연 '지젤 하이라이트'를 오는 13일(오후 7시) 서빛마루문예회관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지젤'은 서유럽 설화를 바탕으로 프랑스 시인 테오필 고티에가 대본을 쓴 낭만 발레극이다. 동양에서 사랑에 빠진 채 죽은 이가 '체너귀신'이 되듯, 서양에서 사랑에 실패한 체너가 죽은 뒤 귀신 '월리'가 된다는 설정에서 출발하는 작품이다.

월리들이 밤마다 무덤가를 지나는 청년을 유혹한 뒤 죽을 때까지 함께 춤춘다는 것이 공연의 흥미 요소. 대상을 유혹해 죽음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서구권

의 세이렌 이야기 등을 연상케 한다. 로맨틱 튀튀(발레복)와 흰 면사포를 입고 군무를 추는 유령들의 모습은 압권, 발레 덕후들에게는 익히 알려져 있는 명 장면이다.

중세독일의 시골마을을 처녀 지젤과 신분을 숨긴 귀족 알브레히트가 비극적 사랑을 펼친 뒤, 2막에서 지젤이 알브레히트를 살려내는 레퍼토리가 주를 이룬다.

아울러 '지젤 패러디(소작농)'라 불리는 파드되(2인무) 중 솔로 바리에이션 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 발만 까딱거리면 시그니처 동작이나 감정연기까지 선보이는 '지젤 매드퀸'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예상된다.

총연출은 박경숙, 재안무 창작은 발레리노 정영재가 맡았다. 전석 1만 원.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발레단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공연 '지젤' 공식 포스터.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b>062) 227-9940</b>
		<b>062) 227-9970</b>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b>02) 765-9940</b>
순천점	중앙시장 앞	<b>061) 752-9940</b>